

‘이다’의 불규칙 활용에 대하여

임흥빈*

1. 머리말

본고는 한국의 학교문법에서 흔히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 ‘이다’에 대하여 우선은 그 품사가 조사가 아니라 형용사이며 그 활용이 다른 형용사나 동사에서 보이는 불규칙 활용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불규칙한 것이어서 한국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다’와 관련한 활용을 불규칙 활용으로 설정하여 철저한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¹

‘이다’의 성격은 초창기부터 상당히 왜곡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초창기에는 이른바 ‘이다’ 논쟁이라 하여 한편으로는 그것을 지정사(잡음씨)라고 하는 최현배(1930, 1937)의 입장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체언의 활용이라 하는 이희승(1949, 1950)이 입장이 대립하여 좀처럼 해결의 실머리를 보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학교문법에서는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본다. 모든 한국어의 사전도 그 품사를 그렇게 기술하고 있다. ‘서술격 조사’는 문법 통일안 작성의 과정에서 태어난 타협의 결과물일 따름이다. 그것은 지정사설도 아니고 체언의 활용설도 아니다.

‘이다’는 형용사로 보아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 활용의 양상이 형용사와 대부분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그 품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특이한 활용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다’의 활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규칙한 것이다. 이를 익히는 일은 한국어의 다른 현상을 익히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본고는 ‘이라고, 이라서, 이라도’ 등과 같은 ‘이다’의 활용에 나타나는 ‘ㄹ’ 어미형을 중시하여 ‘일-’이라는 어간을 상정할 필요성이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2. ‘이다’의 품사 혹은 문법 범주의 문제

‘이다’의 성격을 보는 시각은 불행하게도 매우 다양하다. 우순조(2000), Choi(1993), 최기용(2001) 등은 ‘이다’를 주격 조사로 보는 점에서 서술격 조사 설과는 또 다른 차원에 선다. 고창수(1986), 시정곤(1993) 등은 통사적 접사로 본다. 통사적으로 구 단위에 연결되는 접사임을 강조한 것이다. 황화상(1996, 2005)에서 ‘이다’는 ‘어휘부 결합 통사적 접사’로 보고 있다. 이에 의하면 어떤 문장이 통사 구조를 이루는 과정에서 다시 어휘부에 들어가 접사를 가지고 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문장을 어휘부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 엄정호

* 서울대 명예교수

¹ 본고는 2013년 6월 대만의 문화대학에서 열린 ‘제2차 서태평양 한국어교육 및 한국학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대폭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임용기 교수의 질의를 통하여 어간 설정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음을 밝혀 사의를 표한다.

(1989, 1993), Oh(1991) 등은 동사나 접어로 보는 입장이다. 안명철 (1995)도 접사설에 포함된다. 현대에 올수록 용언설이 줄어들어 오는 느낌을 준다. 형용사로 보는 입장은 강복수(1964), 서병국(1977), 임홍빈(1993, 1994, 2000, 2001), 김창섭(1996) 혹은 이광정(1994), 김정아(2001) 등에서 부분적으로 또는 매우 소략하게 제시되고 있다.²본고는 임홍빈 (1993, 1994, 2000, 2001)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이다’는 분명히 형용사라는 입장에 선다.

‘이다’를 어휘적이거나 통사적 접사로 보는 것은 ‘이다’가 활용을 한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접사론에서 흔히 다룬 것은 ‘이다’의 어간 ‘이-’뿐이다. 그 뒤에 활용 어미가 연결된다는 것을 잊고 있다. 만약 ‘이다’가 접사라면, 그리고 그것이 활용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접사가 활용을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문법의 체계를 전체적으로 어그러뜨린다. 품사를 활용을 하는 품사와 활용을 하지 않는 품사로 나눌 때, 엉뚱하게도 ‘접사’가 활용을 하는 품사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왜 이처럼 불균형한 체계가 만들어졌는가? ‘이다’를 접사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려면 ‘이다’를 접사로 보지 말아야 한다.

둘째, ‘이다’는 ‘나도 1등, 너도 1등.’와 같은 문맥에서 생략된다. 이 경우, 만약 ‘이다’가 접사라면, 접사가 생략된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는 인정할 수 없는 일이다. ‘이다’를 어휘적 접사라고 하는 입장이라면 그것은 어휘적 통합성(Lexical Integrity)의 원리는 어기는 것이 된다. 어휘적 접사가 통사 의미적 환경에서 어근과 분리되어 탈락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휘적 접사는 단일한 어휘를 이루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근과 독립적으로 탈락할 수 없는 것이다. 통사적 접사라고 하면, 이러한 사정에서 좀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통사적 접사도 어휘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것은 그 생략이 쉽지 않다. [‘둘 또는 세 사람’당]에서 ‘당(當)’을 통사적 접사라고 하여 보자.³ ‘당’은 ‘둘 또는 세 사람’ 전체에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통사적이다. 그러나 통사적 문맥에서 ‘당(當)’은 생략될 수 없다. 생략되면 의미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된다. 따라서 ‘이다’를 어휘적이든 통사적이든 접사로 보는 것은 온당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1) ‘이다’의 범주적 성격 [1]

‘이다’는 통사적이거나 어휘적인 접사라고 할 수 없다.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보는 것은 어떤가? 이는 1975년 학교 문법 통일안이 만들어질 때, 최현배의 지정사설과 이희승의 체언 활용설을 절충한 타협의

² ‘이다’를 형용사로 언급한 것이 단 한 줄에 그치는 것도 있다. ‘이다’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문법 논의에서 흔히 쓰이는 범주 명칭은 ‘계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유럽어에서 ‘계사’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는 전혀 편의상의 명칭에 지나지 않는다.

³ ‘표준국어대사전’ 및 ‘금성관 국어대사전’에서는 ‘당(當)’을 접미사로 보고 있다. ‘우리말대사전’이나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서는 ‘매인 이름씨’ 또는 ‘불완전 명사’로 보고 있다. 후자의 경우, ‘당’의 생략이 어휘적 통합성을 파괴하게 되지는 않는다.

산물이다. 최현배의 지정사설에서 ‘서술’이란 것을 가져오고 이희승의 체언 활용설에서 체언 뒤에 온다는 특성을 가져와 조사로 명명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정사설과도 다르고 체언 활용설과도 다른 제3의 범주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범주를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술격’이란 것이 격에 관한 언어 보편성을 크게 어긴다는 것이다. 격이란 어떤 명사구가 문장이나 절이나 구에서 수행하는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범주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명사구가 동일 문장이나 구에 쓰인 서술어나 다른 명사나 명사구에 대하여 가지는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범주이다. 예를 들면, 어떤 명사구가 서술어에 대하여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격(Nominative Case)이며,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격(Accusative Case)이고, 관련 조사를 주격 조사나 대격 조사라고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서술격 조사설을 이에 적용하면, 어떤 명사구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서술격이며, 관련 조사를 ‘서술격 조사’라 하게 된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서술격’이라는 것이 다른 언어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혹 ‘Predicative Case’라는 것을 이에 해당시키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Predicative Case’는 인구어에서 계사 뒤에 오는 주격을 달리 부르는 것이거나 그것과 격일치를 보이는 형용사를 가리키는 술어이다.⁴ ‘이다’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다’ 앞에 오는 명사구가 가지는 격을 ‘서술격’이라 부르는 것과 인구어에서 계사 뒤에 오는 명사구의 격을 서술격이라 부르는 것을 동등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다’가 곧 격 표지(Case Marker)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다’를 격 표지라 하는 것은 영어의 ‘be’ 동사를 격 표지라 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둘째, ‘이다’는 활용을 한다는 것이다. 격 조사가 활용을 한다는 것 또한 언어 보편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실이다. ‘이다’를 조사라고 하면, ‘이다’는 활용을 하는 유일한 조사가 된다. 조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 활용을 하는 조사도 있고 또 있을 수 있다고 강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문법 체계 전반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품사 전체를 활용을 하는 품사 활용을 하지 않는 품사로 나눌 때, 조사는 무엇보다도 활용을 하지 않는 품사에 속한다. 분명하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다’를 서술격 조사라고 하면, 조사 중에서 유독 ‘이다’만이 활용을 하는 품사에 속하게 된다. 문법 체계 전반을 왜곡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이번에는 ‘아니다’와 관련하여 ‘이다’의 서술격 조사설이 가지는 문제의 심각성을 보기로 하자. ‘아니다’를 기원적으로 부사 ‘아니’에 ‘이다’가 결합한 것으로 보기로 한다. ‘아니+이다’가 재구조화된 것이 ‘아니다’이며, ‘이다’와 달리 ‘아니다’가 선행 명사구에 ‘이/가’의 출현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특이성은 재구조화에 의한 것으로 본다.

- (2) 가. 철수가 내 친구이다.
나. 철수가 내 친구가 아니다(아니+이다).

⁴ 이에 대해서는 Wikitionary의 ‘Predicative Case’ 항목을 참조하였다.

다. 철수가 내 친구(가) 이다.

(2가)는 ‘이다’ 문장을 보인 것이고, (2나)는 ‘아니다’ 문장을 보인 것이다. 서술격 조사설에 의하면, (2가)의 ‘이다’가 서술격 조사이고, ‘내 친구이다’가 서술격이라는 것이 된다. 이는 ‘내 친구를’이 전체로서 대격이고, ‘를’이 대격 조사라는 것과 같다. ‘아니다’를 ‘아니+이다’와 같이 분석한다면, (2나)에서 ‘이다’는 ‘아니’에 통합된 것이므로, ‘아니+이다’를 서술격으로 보아야 하고,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보아야 한다. (2나)에 대해서는 (2가)에 대해서와 같이 ‘내 친구’를 서술격이라 할 수 없다. 그것은 이미 ‘가’와 같은 격조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니다’를 서술격이라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아니다’와 관련하여 (2가)를 다시 분석하면, 그것은 (2다)와 같은 것이 된다. (2가)의 ‘내 친구’는 ‘이다’에 지배를 받는 논항으로, 주격 조사(혹은 보격 조사) ‘이/가’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된다. 그것을 추상적으로 나타낸 것이 (2다)와 같은 구조이다. (2다)의 ‘이다’ 앞에 ‘아니’가 쓰여 단형 부정을 이룬 것이 (2나)가 된다. 이러한 분석은 (2가)와 (2나)에서 ‘내 친구’의 통사적 기능을 평행적인 것으로 만든다. ‘내 친구’는 (2가)나 (2나) 모두에서 주격 보어나 보격어가 된다.

넷째, 위의 둘째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강조를 위하여 내포와 관련된 사실을 보기로 하자.

(3) 가. [[[e] 오랜 친구이-] +- 나] 철수가 나를 찾아왔다.

나. [[그가 오랜 친구이-] +- 어서] 나는 그를 찾았다.

(3가)는 ‘오랜 친구이-’라는 문적인 구성이 관형사형 어미 ‘-나’에 의하여 관형절 구성을 이룸을 보인 것이고, (3나)는 ‘그가 오랜 친구이-’ 문적인 구성이 부사형 어미 ‘-어(서)’에 의하여 부사절 구성을 이룸을 보인 것이다. ‘이-’를 내포절 동사로 ‘-나’이나 ‘-어(서)’를 관형사형 어미나 부사형 어미로 보면 이는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그러나 (3가, 나)에서 ‘인’이나 ‘이어(서)’를 전체적으로 서술격 조사로 보면, ‘인’이나 ‘이어(서)’가 내포절의 서술어도 되고 하위절을 상위절 속으로 내포시키는 역할도 하는 것이란 설명도 해야 한다. 조사의 부분 부분이 각기 독립적인 기능을 한다고 해야 한다. 이는 불합리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난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다’를 서술격 조사라고 해석은 안 된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는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볼 수 없게 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4) ‘이다’의 범주적 성격 [2]

‘이다’는 서술격 조사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다’의 품사 혹은 문법적 범주는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필자는 임흥빈(1993, 1995, 2001)에서 그것이 형용사라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여 왔다. ‘이다’는 왜 형용사인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다’는 무엇보다도 활용을 한다. ‘이다, 이고, 이께, 이지, 이어, 이니, 이나, 이면, 일수록, 인, 일, 일지라도; 이라, 이라면’ 등과 같이 어간 ‘이-’에 어미 ‘-다, -고, -께, -지, -어, -니, -나, -면, -르수록, -나, -르, -르지라도; -라, -라면’ 등과

같은 어미가 연결되어 그 활용 범주를 표시한다.⁵ 한국어에서 활용을 하는 품사는 동사와 형용사이다. ‘이다’를 동사나 형용사 밖에 설정하고 그것이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어의 품사적 특성과 그 체계를 크게 오도하는 것이다.

둘째, ‘이다’의 활용은 형용사의 활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용언의 기본형으로 현재 시제를 표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 예를 보면 자명하다.

(5) 가. 동생이 학교에 간다.(현재 시제 : 가+-느-+다)

나. 동생이 부지런하다.(현재 시제 : 부지런하-+다)

다. 동생이 학생이다.(현재 시제 : 이-+다)

(5가)는 동사문의 예를 보인 것이다. 그 시제는 괄호 속에 분석해 보인 바와 같이 선어말 어미 ‘-느-’에 의하여 현재 시제가 표시된다. 이에 대하여 (5나)는 형용사문의 예를 보인 것이다. 그것이 현재 시제를 표시하게 되는 것은 선어말 어미 ‘-느-’의 결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0의 선어말 어미로 상정하는 일도 있으나 여기서는 ‘-느-’가 없는 것으로 본다. (5다)는 ‘이다’의 예를 보인 것이다. 현재 시제에 ‘-느-’가 쓰이지 않고 있다. (5다)는 현재 시제 표시 방식이 (5나)와 같다. 이는 ‘이다’가 형용사임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최현배(1937)에서는 ‘이다’가 지정(指定)의 의미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형용사일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인데, ‘지정’의 의미는 상태나 성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이다. 지정은 가리킴의 의미이다. 그러나 ‘이다’가 대명사와 같이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 기능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다’는 ‘정체 밝힘’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임홍빈 2001 참조). 그것은 성질이나 상태를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다)를 보기로 하자. ‘동생이 학생이라’는 것이 ‘동생’을 ‘학생’으로 지정하는 것인가? 그것이 라기보다는 ‘동생’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다. 그것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태를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다’의 ‘정체 밝힘’의 기능은 형용사의 의미적 속성을 충족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6) ‘이다’의 의미 특성과 형용사

‘이다’의 ‘정체 밝힘’의 기능은 형용사의 의미적 속성을 충족시킨다. 따라서 ‘이다’는 형용사이다.

‘이다’는 형용사이므로, 그 활용의 양상이 따져질 수 있고, 그 특이성이 문제될 수 있다. 최현배 (1937=1959)에서는 ‘이다’의 활용을 동사나 형용사의 활용과 분리하여 그것이 동사의 활용과 어떻게 다르고 또 때로 형용사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다’의 활용에는 불규칙 활용이라는 것이 설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다’는 분명히 용언이며, 그것도 그 활용이 다른 어떠한 용언에서 보는 바와는 다른 매우 특이한 불규칙 활용을 하는 형용사이

⁵ ‘-라, -라면’ 등과 같은 어미에 대해서는 곧 다루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어미 앞에 있는 두음 ‘ㄹ’을 어간의 일부로 보려고 한다.

다.

3. ‘이-’의 쌍형 어간 ‘*일-’의 설정 가능성

3.1. ‘이다’ 관련 어미의 두 계열

‘이다’의 어미에는 두 가지 계열이 있다. 하나는 일반 어미이며, 다른 하나는 특수 어미이다. 일반 어미는 다른 용언에도 연결되는 어미로, ‘-다, -ㅂ니다; -어, -고, -게, -지, -니, 니까, -나, -면, -르수록, -르지라도, -어도 ; -ㄴ, -르; -ㅁ, -기 ; -거든, 거니, 건마는; -더.’ 등과 같은 어말 어미 및 선어말 어미를 말하고, 특수 어미는 ‘이다’의 어간에만 연결되는 ‘-라1,⁶ -로소이다, -울소이다, -울시다, -르세; -라2, -라고, -라(서), -라도, -라야 ; -로구나, -로구면, -로군; -어든, -어니, -언마는 ; -자, -관대/완대, -요 ; -러.’ 등과 같은 어말 어미 및 선어말 어미를 말한다.

문제는 ‘이다’가 취하는 특수 어미를 어떻게 설명하는가이다. 여기서는 특히 ‘이다’가 ‘ㄹ’계 특수 어미를 취한다는 것을 중시하여, ‘이-’의 쌍형 어간으로 ‘*일-’을 설정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로 한다.

3.2. ‘이-’의 쌍형 어간과 연결 어미

연결 어미 ‘-라2’의 문제부터 다루기로 한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7) 가. 그가 진실한 사람이라/사람이라서 우리는 그를 믿었다.

나. 그가 집주인이어/집주인이어서 우리는 그를 믿었다.

다. 그가 밥을 먹어/먹어서 우리만 따로 점심을 시켰다.

(7가)의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이라’와 ‘이라서’는 일반적으로 ‘이다’의 어간 ‘이-’에 어미 ‘-라’ 혹은 ‘-라서’가 붙은 것으로 분석한다.⁷ 모든 한국어 사전이 다 그러한 정보를 싣고 있다. 그러나 ‘이다’의 어간 ‘이-’ 뒤에 ‘-라(서)’와 같은 특수 어미만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7나)에 보인 바와 같이 ‘-어, -어서’와 같은 어미도 쓰일 수 있다. (7나)에 쓰인 연결 어미 ‘-아/어(서)’는 (7다)에 쓰인 ‘-아/어(서)’와 같다. (7나)와 (7다)에 쓰인 것은 일반 어미이다. 이에 대하여 (7가)에 쓰인 ‘-라(서)’는 ‘이다’에만 특이한 어미이다.

(7가)의 ‘이라, 이라서’는 ‘이다’의 어간 ‘이-’에 어미 ‘-라’ 혹은 ‘-라서’가 결합된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어간 ‘*일-’에 어미 ‘-아/어’ 또는 ‘-아/어서’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8) 가. 이-(‘이다’의 어간)+-라(서)(어미)→이라(서)

나. *일-(‘이-’의 쌍형 어간)+-아/어(서)(어미)→*일아서→이라서

(8가)는 ‘이다’의 어간을 ‘이-’로 상정하고 ‘-아/어(서)’에 해당하는 어미를 ‘-라(서)’로 상정한 것이고, (8나)는 ‘이다’의 어미를 일반적인 어미 ‘-아/어(서)’로 상

⁶ ‘-라 1’은 종결 어미를 말한다. ‘-라’에 지표를 붙인 것은 연결 어미 ‘-라 2’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⁷ ‘-라’와 ‘-라서’를 합하여 ‘-라(서)’와 같이 나타내기로 한다.

정하고 ‘이다’의 어간을 ‘*일-’로 상정한 것이다.⁸ (8나)에서는 ‘*일-’을 ‘이다’의 어간 ‘이-’의 쌍형 어간으로 명명하였다. ‘이-’와 ‘*일-’의 관계가 이형태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와 ‘*일-’의 교체를 음운론적인 것으로도 볼 수 없고 형태론적인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어휘론적인 교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다’와 ‘*일다’를 쌍형어로 보아 ‘*일-’을 쌍형 어간이라 부르기로 한다.⁹

(8가)와 같이 상정하면 어미의 불규칙성이 발생하고, (8나)와 같이 상정하면 어간의 불규칙성이 발생한다. 이 두 가지 불규칙성을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9) 가. 어미의 불규칙성으로 접근하는 방법 : 어느 경우이나 어간을 ‘이-’로 고정시키고 ‘ㄹ’계 어미들에 대하여 특수 어미를 상정하는 방법.

나. 어간의 불규칙성으로 접근하는 방법 : 어미를 일반 어미로 고정시키고 ‘ㄹ’계 어미들에 대하여 특수 어간 ‘*일-’을 상정하는 방법.

(9가)와 (9나)의 방법 중 어느 것이 우위에 서는가? 한국어 사전에서는 (8가, 나)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9가)적이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9가)보다는 (9나)의 방법이 부담이 적다. (9가)에서는 ‘-아/어(서)’에 해당하는 어미가 ‘-라(서)’와 같이 특이하게 변한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라/러(서)’와 ‘-아/어(서)’의 기능이 왜 동일한가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할 방법이 없다. 그것은 단지 우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9나)의 방법에 의하면 ‘-라/러(서)’는 ‘ㄹ’을 가진 어간에 의하여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능을 같이 하는 형태소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10) ‘이다’ 어간의 쌍형 어간 ‘*일-’

‘-라/러(서)’와 같은 ‘ㄹ’계 특수 어미에 대하여, ‘이다’의 어간 ‘이-’의 쌍형 어간을 ‘*일-’로 상정하여 어간의 불규칙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미의 불규칙성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설명력이 크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11) 가. 바보라도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¹⁰

나. 밥이라도 좀 먹지 그래.

다. 바보이어도(여도)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 그가 바보라도,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⁸ ‘러’ 형태가 나타나는 일은 없다. 지정 형용사 ‘이다’가 중세나 근대에 ‘러’를 선택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⁹ 쌍형어는 ‘머리:마리, 늪다:늪다’의 관계와 같이 어원이 같으나 의미가 다른 동원어의어(同源異義語)의 성격을 가진다. ‘이-’와 ‘*일-’은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아 정확하게 쌍형어의 관계를 이루는 것인지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다’의 분포와 형태소 연결이 ‘*일다’와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니다. ‘*일-’에는 관형사형 어미와 명사형 어미의 연결이 제약되고 시제 선어말 어미의 연결도 제약을 보인다. 이것을 기능이 다른 것으로 보아 쌍형어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¹⁰ ‘(이)라도’를 ‘(이)라고 해도’의 축약이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라고 해도’는 ‘(이)래도’로 축약되는 것이 원칙이다. ‘밥이라도 좀 먹어라’를 ‘??밥이래도 좀 먹어라’와 같이 말하는 것은 이상하다.

마. 바보이있어도(였어도),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11가, 나)의 ‘(이)라도’는 한국어 사전에서 보조사로 분류된다. 그러나 그 의미나 기능이 (11다)의 ‘이어도(여도)’와 크게 다른 것이 아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11라)와 같은 구성의 ‘(이)라도’가 어미로 되어 있다. (11가)는 (11라)에서 내포절의 주어와 모문의 주어가 나타나지 않은 예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것을 어미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이어도(여도)’는 (11마)의 ‘이있어도(였어도)’와 같이 과거 형태를 가지고 쓰일 수 있다. ‘(이)라도’와 달리 ‘이어도’는 절대로 보조사로 보지 않는 이유의 하나가 되고 있다. ‘-라도’에 대해서는 과거 시제 형태가 쓰일 수 없다. ‘-라도’를 어미로 인식하기 어려운 다른 이유는 부사절에 대하여 숨어 있는 주어를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며, 분명한 주어로 상정되는 것도 흔히 상정되는 것은 ‘그’와 같은 3인칭 대명사라는 것이다. 주어가 특수한 인칭으로 제약된다. 따라서 그 주어가 자명한 것이어서 생략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가령 ‘그것이¹라도 먹겠다’라고 할 경우, ‘이²라도’-절의 주어를 상정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을 보조사로 인식하는 것은 재구조화에 의한 것일 뿐이다. ‘(이)라도’를 왜 보조사로 보려고 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이다’의 어간을 ‘*일-’과 같이 설정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학교 문법에서는 ‘이다’를 용언으로 보지도 않는데, 거기에 대하여 어간을 둘씩이나 상정하는 것이 쉬운 일일 수 없다. 그러나 ‘이다’의 어간의 하나를 ‘*일-’로 상정할 때, ‘이라도’는 ‘어간 *일-’에 어미 ‘-아/어도’가 연결된 예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12) 가. 뉘라 그런 말을 하겠느냐?

나. 뉘라서 겨울더러 추웁다더냐?

다. 뉘시라 그런 말을 하겠느냐?

라. 아버님이시라 그런 생각을 하신다.

마. 그것이 뉘라서 겨울더러 추웁다더냐?

바. 누구라고 그런 말을 하겠느냐?

(12나)의 ‘라서’에 대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은 “(받침 없는 체언 뒤에 붙어)(예스러운 표현으로) 특별히 가리켜 강조하며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감히, 능히’의 뜻이 포함된다.”고 풀이하고 있다. (12가)에서 보면, ‘라서’뿐만 아니라 ‘라’도 같은 기능을 한다. (12다)는 ‘라’ 앞에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쓰일 수 있음을 보인다. 서술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12라)에서 ‘-시라’는 그 앞에 오는 ‘아버님’에 대해서도 쓰일 수 있다. ‘아버님이시라’는 서술성이 아주 커진다. (12나)는 (12마)와 같은 구조에서 내포절의 주어 ‘그것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12사)의 ‘라고’도 ‘라서’와 거의 유사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라고’를 주격 조사라고 하는 일은 없다. ‘라, 라서’도 원래 보조사가 아니라 어미 형식이다.

‘이라야’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13) 가. 청년이라야 그 일을 할 수 있다.

나. 지원한 사람이 청년이라야 그 일을 할 수 있다.

(13가)의 밑줄 친 ‘이라야’에 대해서도 한국어 사전은 대체로 보조사로 범주화하고 있다. 그러나 (13가)의 ‘이라야’와 (13나)의 ‘이라야’는 그 기능에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것이다. (13나)에서는 내포질의 주어가 밖으로 드러나 있으나, (13가)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다.

3.3. ‘이-’의 쌍형 어간과 종결 어미

아래 (14가-다)에 보인 예들은 중세어적인 예로 의고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지만, 현대에서도 노년층에서 실제로 쓰이는 예들이다.

(14) 가. 사람이 오늘 우리 집에 오느니라.

나. 그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니라.

다. 그가 너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리라.

(14가-다)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분석을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15) 가. -느(실현성의 선어말 어미)-+ㄴ(소여의 동명사 어미)#이(지정 형용사 어간)+-라(종결 어미)

나. -ㄴ(소여의 동명사 어미)#이(지정 형용사 어간)+-라(종결 어미)

다. -ㄹ(비소여의 동명사 어미)#이(지정 형용사 어간)+-라(종결 어미)

(14가, 나)의 밑줄 친 부분을 ‘-니라’를 하나의 어미로 분석하는 일도 있고, ‘-니-’와 ‘-라’를 따로 분석하기도 하고, 심지어 ‘-느니라’ 전체를 하나의 어미로 취급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그 원초적인 분석은 ‘-느니라, -니라, -리라’를 (15가-다)와 같이 동명사 어미 뒤에 ‘이다’가 연결된 구성으로 보는 것이다. (15가, 나)에서는 ‘-ㄴ’을 소여(所興)의 동명사 어미(즉 주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동명사 어미)로 분석하였고, (15다)에서는 ‘-ㄹ’을 비소여(非所興)의 동명사 어미(즉 주어지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동명사 어미)로 분석하였다. 흔히 ‘-ㄴ’을 완료나 과거 관형사형 어미로, ‘-ㄹ’을 비완료 혹은 미래 관형사형 어미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ㄴ’을 완료나 과거 관형사형 어미로 보면, (14가)와 같이 ‘-느+ㄴ’의 결합을 설명하기 어렵다. ‘-느-’가 표현하는 의미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5가)와 같은 분석에 의하면, (15가)의 경우 ‘-ㄴ’ 앞에 ‘-느-’가 있고 또 그것이 동사의 행동적 속성이 실현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뒤에 오는 ‘-ㄴ’은 동사의 행동적 속성이 실현되는 것이 그대로 주어지는 것임을 나타내게 된다. 통사적으로 ‘-ㄴ’은 동명사 어미로 명사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라’의 ‘이-’에 대한 지정 형용사 분석이 지지될 수 있다. ‘-라’는 다른 용언 어간 뒤에서는 ‘-다’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다’의 ‘이-’ 뒤에서는 불규칙하게 ‘-라’로 나타나는 것이 된다. 우선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16) ‘-라’ 종결 어미의 불규칙성 (곧 수정됨)

지정 형용사 ‘이-’ 뒤에서 종결 어미 ‘-다’는 ‘-라’로 나타나기도 한다.

위의 ‘이라서, 이라도, 이라야’ 등과 관련하여 (10)에서는 지정 형용사 ‘이-’의 쌍형 어간으로 ‘*일-’을 상정하여 ‘ㄹ’계 어미의 특수성을 설명하였다. (15가-다)

에 대해서도 쌍형 어간 ‘*일-’을 가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교체를 다음과 같이 상정해 보기로 한다.

(17) 가. 이-('이다'의 어간)+다 → 이다

나. *일-('이-'의 쌍형 어간)+다 → 이라

(17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다’의 어간 ‘이-’ 뒤에 어미 ‘-다’가 올 때 ‘이다’가 된다. 매우 규칙적인 현상이고, 현대의 대표적인 활용의 모습이다. 20세기 초까지도 (17가)와 같은 종결 형식이 나타나지 않았다. 현대 이전에는 (17나)와 같은 ‘이라’형이 지배적으로 쓰이었다. ‘이다’의 어간에 ‘-다’가 올 때에는 ‘이다’가 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17나)와 같이 어말 어미 ‘-다’를 ‘-라’로 만드는 것은 ‘이-’의 쌍형 어간 ‘*일-’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음운 규칙으로는 (17나)가 지지되지 않는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18) 가. 바다에는 파도가 일도다/이도다.

나. 행렬이 상당히 길도다/기도다

(18가)는 ‘일다[起]’의 어간 ‘일-’의 ‘ㄹ’ 받침이 ‘-도다’ 앞에서 유지될 수도 있고, 탈락할 수도 있음을 보인 것이다. 이는 (18나)에서도 같다. ‘길다[長]’의 어간 ‘길-’의 받침 ‘ㄹ’이 ‘-도다’ 앞에서 유지될 수도 있고, 탈락할 수도 있다. 어간 말자음 ‘ㄹ’의 탈락은 다소 고풍스러운 발음으로 인식된다.

(17나)가 보이는 현상은 (18가, 나)와는 분명히 다르다. 그렇다면 (17나)를 버려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17나)는 분명히 존재하는 현상이다. (18가, 나)를 일반적이며 규칙적인 현상이라고 할 때, (17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므로, 불규칙적인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있다. 어간 ‘이-’가 ‘*일-’로 교체하는 것도 불규칙하고, 받침 ‘ㄹ’이 어미 ‘-다’를 ‘-라’로 바꾼 뒤에 탈락하는 것도 불규칙하다. 어간과 어미의 교체가 모두 불규칙하다. 이제 (16)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다.

(19) 어간 ‘*일-’과 어미 ‘-라’의 불규칙성

지정 형용사 ‘이-’ 뒤에서 종결 어미 ‘-다’가 ‘-라’로 바뀌는 것은, ‘이다’의 어간을 ‘*일-’로 상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에는 ‘*일-’ 뒤에서 어미 ‘-다’가 ‘-라’로 바뀌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므로, 불규칙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선행 ‘ㄹ’이 후행 ‘ㄷ’을 ‘ㄹ’로 바꾸고 동화주는 스스로 탈락하는 것과 같은 변화는 다른 음운 변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교체도 아니며, 형태론적으로 조건된 교체라고도 할 수 없다. ‘이다’가 ‘*일다’에서 ‘이다’로 변해 가는 과정 가운데, 두 개의 어기가 작용하는 것이므로, 어휘적으로 조건된 교체라고 하는 것이 다소 적합한 것일 수 있다.

‘이다’의 내포절에 쓰일 때 그 어미는 현대에도 어느 경우어나 ‘-라’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이라’가 ‘이다’에 선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근절보다는 내포절에 나타나는 형식일수록 과거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20)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20) 내포의 깊이와 고대형

근절보다는 내포절에 나타나는 형식일수록 과거적인 것이다.

관련 예를 다음 (21)-(22)에서 보기로 한다.

(21) 가. 철수가 영희가 동생이라고 말하였다.

나. *철수가 영희가 동생이라고 말하였다.

(22) 가. 철수가 “영희가 동생이다.”라고 말하였다.

나. 철수가 “영희가 동생이다.”하고 말하였다.

(21가)는 간접 인용의 예를 보이고, (22가, 나)는 직접 인용의 예를 보인다. (22가, 나)의 내포절은 모두 ‘-다’ 어미를 가지고 있으나, (21가, 나)는 그렇지 않다. (21나)는 완전한 비문이다. ‘이다’가 현재 시제의 무양태로 내포절에 나타날 때 그 형식은 언제나 ‘이라’여야 한다. 이에 (20)을 적용하면, ‘이라’가 ‘이다’보다는 이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23) ‘이라’형에 대한 가설

‘이다’가 현재 시제 무양태로 내포절에 쓰일 때는 항상 ‘이라’가 된다. 이는 ‘이라’형이 과거의 고대형식임을 말해 준다.

이제 ‘-로-’가 나타나는 예를 보기로 하자.

(24) 가.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 *나는 왕이소이다.

다. *일-(‘이-’의 쌍형 어간)+오-(확실성의 양태 선어말 어미)+소-(<사오-< ㅅ
-)+-이-+다

라. 四夷 撫코자 시노소이다 <맹자 1:29a>

(24가)의 밑줄 친 ‘이로소이다’는 (24다)와 같이 분석될 수 있다. ‘이로-’는 ‘이-’의 쌍형 어간 ‘*일-’에 확실성의 양태 선어말 어미 ‘-오/우-’가 연결된 것이고, ‘-소-’는 화자 겸양의 형태와 조음소가 결합한 ‘-ㅅ-’의 후대형인 ‘-사오-’의 축약형이다. ‘-소이다’의 ‘-이-’는 ‘하오’체의 청자 높임 선어말 어미이며, ‘-다’는 종결 어미이다. 그런데, ‘-소이다’ 앞에는 (24라)의 ‘-노-’¹¹에 보이는 바와 같이 확실성의 양태 선어말 어미 ‘-오/우-’가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분명히 ‘이로-’가 ‘*일-’ 어간에 확실성의 양태 선어말 어미 ‘-오/우-’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25) ‘이로소이다’에서 ‘이-’의 쌍형 어간 ‘*일-’

‘이로소이다’의 ‘로’는 ‘이-’의 쌍형 어간 ‘*일-’의 받침 ‘ㄹ’과 확실성의 양태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한 것이다.

‘-소이다’가 ‘이다’의 어간에 연결될 때에는 반드시 ‘로’를 수반해야 한다. (24나)는 이 조건을 지키지 않아 비문이 된 것이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26) 가. 여기가 내 고향이로세.

나. 이것이 책일세.

¹¹ ‘-노-’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 -’에 확실성의 양태 선어말 어미 ‘-오/우-’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일-(‘이-’의 쌍형 어간)+오-(확실성의 양태 선어말 어미)+쇠/세(<사오이)

(26가)의 밑줄 친 ‘이로세’는 (26다)와 같이 분석될 수 있다. ‘-쇠’는 ‘-소이’의 축약형이고, ‘-세’는 다시 ‘쇠’의 비원순형이라 할 수 있다. (26가)에서 ‘이로-’의 ‘로’가 ‘오’를 잃고 ‘일-’이 된 것이 (26나)의 ‘일세’이다. ‘이-’의 쌍형 어간으로 ‘*일-’을 상정하는 것이 유효함을 보이는 예들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27) 가. 이것이 책이올소이다.

나. 이것이 책이올시다.

다.*일++오-(확실성의 양태 선어말 어미)→이로[iro]→이올[ior]-

라. 이것이 책이로소이다.

(27가)의 밑줄 친 부분에서 주목되는 것은 ‘-올-’이다. ‘-올-’은 ‘-로-’와 관련되는 형태로 여겨진다. (27가)가 (27라)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 의미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 그런데, ‘-로-’가 어떻게 ‘-올-’과 같이 되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27나)의 뒷부분에 상정한 바와 같이 음운 도치(音韻倒置, metathesis)를 상정해 보는 것이 한 가지 해결법일 수 있다. ‘*일-’에 확실성의 양태 선어말 어미 ‘-오-’가 연결되고, ‘ㄹ’이 연음되어 ‘이로-’가 된 뒤에, ‘로[ro]’가 음운 도치(音韻倒置, metathesis)를 겪어 ‘올[or]’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다른 가설을 세워 보기 어려우므로, 우선은 음운 도치에 만족하기로 한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28) 가.이것이 책이올시다.

나.이++올(←로)+-소이다→이올쇠다→이올세다→이올시다

다.이것이 책이올습니다.

라.이++올(←로)+-스(←사오-< ㅅㅌ)(화자 겸양)+-ㅂ(화자 겸양)+ (현재 시제)+- (칭자 높임)+다→이올습니다

(28가)의 ‘이올시다’는 (28나)와 같이 ‘이올소이다’에서 ‘소이’가 축약되어 ‘-쇠’가 되고 ‘-쇠’가 다시 ‘-세’가 되고 그것이 또 다시 ‘-시’로 변한 것이다. (28다)와 같은 ‘이올습니다’에 대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올시다’의 잘못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올시다’는 ‘하십시오(합쇼)’체가 아니다. ‘-올습니다’를 잘못이라 한다면, 이러한 형식으로는 ‘하십시오(합쇼)’체의 높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28라)에 보인 바와 같이, ‘이로-’ 뒤에 ‘ㅅㅌ’의 후대형인 ‘사오’가 변한 ‘스’ 뒤에 다시 화자 겸양의 ‘ㅂ’이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나’와 같이 어미에 ‘-구-’를 가진 감탄 어미는 ‘이다’의 어간 ‘이-’ 뒤에서 ‘-로구나’와 같이 ‘-로-’를 앞에 가질 수 있다. 예를 보기로 하자.

(29) 가. 이것이 (ㄱ)책이구나(ㄴ)책이로구나

나. 이것이 (ㄱ)책이구먼(ㄴ)책이로구먼.

다. 이것이 (ㄱ)책이군(ㄴ)책이로군.

라. 이것이 (ㄱ) 책이군요(ㄴ)책이로군요

(29가-라)는 ‘이다’의 어간에 ‘구’를 가진 감탄형 어미가 연결된 것이다. 각 예의 (ㄱ)은 어간 ‘이-’에 ‘-구나, -구면, -군, -군요’ 등과 같은 비-‘로’계 어미가 연결된 것을 보인 것이고, (ㄴ)은 ‘이-’에 ‘-로구나, -로구면, -로군, -로군요’ 등과 같은 ‘로’계 어미가 연결된 것을 보인 것이다. 비-‘르’계 어미는 다른 용언에도 쓰이므로 일반 감탄 어미이라고 한다면, ‘로’계 어미는 ‘이다’ 외의 다른 용언에는 쓰이지 않는 특수 감탄 어미라고 할 수 있다. 비-‘로’계를 규칙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로’계는 불규칙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로’를 어간의 일부라고 하여 보자. 그렇 경우, ‘이다’의 어간 ‘이-’는 ‘구’로 시작되는 감탄 어미 앞에서 ‘이로-’로 교체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정형용사 ‘이다’에서 어간 ‘이-’가 ‘이로-’와 교체하는 것과 같은 일이 다른 용언에서 나타나는 일은 없으므로, 어간이 ‘이-’와 ‘이로-’로 교체하는 것은 불규칙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이를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30) ‘로’계 어미와 어간의 교체

어간 ‘이-’에 ‘구’를 가진 감탄 어미가 연결될 때 ‘이-’가 ‘이로-’와 같이 교체하는 것은 불규칙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다’의 어간 ‘이-’가 ‘이로-’와 교체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결 어미 ‘이라서, 이라도, 이라야’ 및 종결 어미 ‘이라’ 등의 분석에서 추출되는 어간 ‘일*’을 ‘이로-’형에 적용하면 ‘이로-’는 ‘*일-’과 ‘-오-’로 분석된다. ‘*일-’을 어간으로 하는 ‘이로구나’의 가능한 분석을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31) 가. *일-(‘이-’의 쌍형 어간)+오구나(감탄 어미)

나. *일-(‘이-’의 쌍형 어간)+오-(조음소?)+구나(감탄 어미)¹²

다. *이로-(‘이-’의 쌍형 어간?)+구나(감탄 어미)

(31가)는 ‘이다’ 어간의 쌍형 어간을 ‘일-’로, 감탄 어미를 ‘-오구나’로 상정한 것이다. 이는 ‘-구나’의 쌍형 어간으로 ‘-오구나’를 상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구나’형이 다른 예에 쓰이는 일이 없으므로, 선택하기 어렵다. (31나)는 ‘-오-’를 조음소적인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32) 가. 네 콩 습기 아디 못흐는 듯흐고나 <번역노걸대 상 19b-20a>

나. 네 독벼리 모르느고나 <번역노걸대 상 27a>

(32가, 나)의 어미 ‘-고나’는 현대의 ‘-구나’에 해당하는 어미이다. (32가)의 ‘고나’의 ‘는’ ‘-오-’를 가지지 않은 형태이며, (32나)의 ‘모르 고나’의 ‘ ’도 ‘-오-’를 가지지 않은 형태이다. 확실성의 양태 선어말 어미 ‘-오/우-’가 쓰였다면, ‘* 호고나, *모 노고나’와 같은 모양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세어 자료에 이러한 예는 없다. ‘구’계 감탄 어미와 확실성의 양태 선어말 어미 ‘-오/우-’는 같이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감탄 어미와 같이 나타나는 ‘로’는 아래 (33가, 나)에 나타나는 ‘이로라’에 대한 유추일 수도 있고, (33다, 라)에 나타나는 ‘이로다’에 대한 유추일 수도 있다. ‘로’의 ‘르’은 어간의 쌍형 어간인 ‘*일-’의 받침 ‘르’

¹² ‘-구나’는 우선 더 이상 분석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에서 온 것이며, ‘오’는 유추에 의하여 생겨난 조음소적인 요소로 분석된다. 그러나 다른 예에서 같은 현상이나 형태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이다’ 활용의 불규칙성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3) 가. 그는 우리 동네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이다.

나. *일-(‘이-’의 쌍형 어간)+-오-(확실성의 양태 선어말 어미)+-라(종결 어미)→일오라→이로라

다. 그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로다.

라.*일-(‘이다’ 어간의 쌍형 어간)+-도-(감탄 선어말 어미)+-다(종결 어미)→이로다

(33가)의 밑줄 친 ‘-로-’는, (33나)에 보인 바와 같이, 어간 ‘이-’의 쌍형 어간 ‘*일-’에 확실성의 양태 선어말 어미 ‘-오-’가 오고 그 뒤에 다시 종결 어미 ‘-라’가 온 것이다. ‘*일오라’가 연철 또는 연음되어 ‘이로라’가 된 것이다. ‘-로라’에도 어느 정도 감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계 감탄 어미에도 영향을 미쳐 ‘*일+구나’가 ‘이로구나’와 같이 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33다)는 (33라)와 같이 감탄 선어말 어미 ‘-도-’가 ‘-로-’로 바뀐 것을 보인다. ‘이다’ 어간의 쌍형 어간 ‘*일-’의 받침 ‘ㄹ’이 ‘-도-’의 두음을 ‘ㄹ’로 바꾸고 스스로는 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또한 ‘이다’ 활용의 불규칙성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34) ‘이다’의 쌍형 어간과 ‘ㄷ→ㄹ’ 변화

‘이다’ 어간의 쌍형 어간 ‘*일-’의 받침 ‘ㄹ’은 후행하는 자음 ‘ㄷ’을 ‘ㄹ’로 바꾸고 스스로는 탈락하는 일이 있다. 이 또한 ‘이다’ 활용의 불규칙성이다.

3.4. ‘이-’의 쌍형 어간 ‘*일-’과 기타의 형태

위에서는 연결 어미와 종결 어미에 나타나는 ‘ㄹ’계 어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선어말 어미와 기타의 연결 어미와 관련되는 ‘이-’의 쌍형 어간 ‘*일-’ 관련 현상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선어말 어미 ‘-더-’가 ‘-러-’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기로 하자.

(35) 가. 그가 젊은이들의 우상이더라.

나. 그가 젊은이들의 우상이러라.

다.*일+-더-(회상의 양태 선어말 어미)+-다(종결 어미)→이러라¹³

‘이다’ 뒤에서는 (34가)와 같이 회상의 선어말 어미 ‘-더-’가 (34나)와 같이 ‘-러-’가 될 수 있다. ‘-러-’형은 중세어에서는 왕성하게 쓰였으나, 현대에는 문어에 간혹 나타나는 일이 있을 정도이다. 이에 대해서도 ‘이다’ 어간의 쌍형 어간을 ‘*일-’로 가정하면 (35다)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34)에 의하여 ‘이-’의 쌍형 어간 ‘*일-’의 받침 ‘ㄹ’이 ‘-더-’의 ‘ㄷ’을 ‘ㄹ’로 바꾸고 스스로는 탈락한 것으로 설명된다. ‘-러니, -런, -런들’ 등에 나타나는 ‘-러-’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36) 가. 그것이 수표이거든 받아 두어라.

나. 그것이 수표이어든 받아 두어라.

¹³ ‘-더-’를 필자는 임흥빈(1982)에서 ‘단절’을 나타내는 형태소로 본 바 있다.

다. 이[iy]-+거든→이어든

라. *일-+거든(어미)→이어든

(36가)의 ‘이거든’은 (36나)와 같이 ‘이어든’으로 교체된다. ‘-거늘, -거니, -건마는, -건만’ 등과 같이 앞에 ‘거’를 가지는 어말 어미들이 동일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36나)의 ‘-어든’과 같은 형태를 ‘ㄱ’ 탈락형으로 부르기로 한다. 중세어에서는 ‘이-’ 뒤에서는 ‘ㄱ’ 탈락형이 일반적이었다. 현대에 (36가)가 일반화된 것은 ‘이다’가 점차 규칙 동사화하면서 탈락형이 세력을 잃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세어에서는 ‘ 외어늘’과 같이 어간이 ‘ㅣ’계 이중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도 ‘ㄱ’ 탈락이 일어났다. 동일한 현상이 ‘이다’의 어간 뒤에서도 일어났으므로, ‘이다’의 어간을 /iy/로 상징하여 ‘ㄱ’ 탈락에 접근하기도 하였다(이기문 1972). 그러나 ‘이다’의 ‘이’를 /iy/로 보는 것은 ‘ㄱ’ 탈락만을 위한 임의적인 처리의 성격을 띤다. 반면, ‘이다’의 어간을 *일-’로 가정하면, ‘ㄹ’ 아래에서 ‘ㄱ’의 탈락이라는 일반적인 현상의 하나가 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의 쌍형 어간을 *일-’로 가정하는 것은 상당한 지지를 가지는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37) ‘이-’의 쌍형 어간과 ‘ㄱ’ 탈락

‘-거늘, -거니, -거든, -건마는, -건만’ 등의 어미는 ‘이다’의 어간 ‘이-’ 뒤에서 ‘ㄱ’이 탈락한다. 이는 ‘이-’의 쌍형 어간을 *일-’로 가정하면 일반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때 ‘이-’가 쌍형 어간 *일-’이 되는 것, ‘거-’계의 어미에서 ‘ㄱ’이 탈락하는 것은 불규칙적인 것이다.

연결 어미 ‘-고’가 ‘이다’의 어간 ‘이-’ 뒤에서 ‘ㄱ’이 탈락하여 ‘-오’가 되기도 한다.

(38) 가. 이것은 책이고, 저것은 연필이다.

나. 이것은 책이오(←오←고), 저것은 연필이다.

(39) 가. 앞집 처녀가 물동이를 이고 간다.

나. 앞집 처녀가 물동이를 *이오(←고) 간다.

(38가)는 ‘이-’에 연결 어미 ‘-고’가 온 경우이다. ‘-고’는 그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고’는 다른 용언 뒤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고’와 동질적이다. 그러나 (38나)의 ‘-요’는 괄호 속에 보인 바와 같이 ‘-고’의 ‘ㄱ’이 탈락한 뒤에 ‘ㅣ’ 어간의 모음의 영향으로 ‘요’가 된 것이다. (39가, 나)는 다른 동사의 경우를 예들어 보인 것이다. ‘이[頭上負]-고’의 ‘-고’는 그 ‘ㄱ’이 동사 어간 ‘이[頭上負]-’ 뒤에서 탈락하여 ‘-오’가 되지 않는다. 지정 형용사 ‘이-’ 뒤에서만 연결 어미 ‘-고’에서 ‘ㄱ’ 탈락이 일어난다. 이는 (37)에 포함되는 현상이다.

이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것에 ‘-관대/완대’가 있다.

(40) 가. 너는 무엇이관대 놀기만 하느냐?

나. 너는 무엇이완대 놀기만 하느냐?

‘-관대’는 (40가)와 같이 ‘ㄱ’ 탈락 없이 그대로도 쓰일 수 있고, (40나)와 같이 ‘ㄱ’ 탈락이 일어나 ‘-완대’로도 쓰일 수 있다. ‘-관대’ 자체가 ‘이다’에만 쓰이는 어미라는 것이 특이하다. ‘-관대’가 (40나)와 같이 ‘ㄱ’ 탈락을 보이는 것은

‘이-’의 쌍형 어간 *‘일-’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이 또한 (37)에 포함되는 현상이다.

‘이다’에 대하여 의미적 특이성을 보이는 어미는 동시적인 겹침을 나타내는 어미 ‘-자’이다.

(41) 가. 그는 시인이자 교수이다.

다. 그는 시인이며/이면서 교수이다.

(42) 가. 까마귀 날자 새 떨어진다.

나. *종이가 투명하자 깨끗하다.

다. 종이가 투명하면서 깨끗하다.

(41가)의 ‘-자’는 동시적인 겹침의 의미를 나타낸다. 주어가 ‘시인’이면서 동시에 ‘교수’가 되는 의미를 표현한다. (41나)의 ‘-며, -면서’와 거의 같은 의미이다. 그런데 연결 어미 ‘-자’가 동시적인 겹침을 나타내는 것은 ‘이다’에만 국한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41가)는 동사 ‘날-’에 ‘-자’가 연결된 것이지만, 그 의미는 겹침이 아니라 연발(連發)이다. ‘연발’은 앞의 사건이 끝나고 바로 뒤의 사건이 일어나는 관계를 말한다. (41나)가 말하는 것은 형용사에는 ‘-자’ 어미가 쓰일 수도 없고 동시적인 겹침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이-’에 쓰인 ‘-자’는 의미적으로 불규칙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결 론

한국어 문법에서 ‘이다’는 그 성격이 크게 왜곡되어 왔다. ‘이다’를 지정사로 보는 견해가 있었는가 하면 그것을 체언의 활용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 왔다. 학교 문법에서는 ‘이다’를 서술격 조사라는 한다. 지정사설과 체언의 활용설을 절충한 것이지만, 그 성격은 더욱 왜곡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에는 접사설까지 제기된 일이 있다. 그러나 ‘이다’가 용언이 아니라는 가설은 절대로 온당한 것이 아니다. ‘이다’가 활용을 한다는 것은 부정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다’는 그 활용의 양상으로 보아 형용사인 것이 분명하며, 그 의미를 부각시킨다면 ‘지정 형용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이다’의 활용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학교 문법에서 ‘이다’를 용언이 아닌, 서술격 조사라고 하였으니 그 활용의 양상이 부각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그 활용의 양상이 불규칙한 것인지 어떻게 불규칙한 것인지에 대하여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있었다. ‘이다’의 활용을 인정하자마자 ‘이다’는 서술격 조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다’의 활용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ㄹ’계 어미를 가지는 것이다. 다른 용언의 활용에서는 ‘-아/어(서), -아/어야, -아/어도’ 등과 같이 나타나는 어미가, ‘이다’에 대해서는 ‘-아/어(서), -아/어야, -아/어도’ 외에도 ‘-라서, -라야, -라도’와 같은 어미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이-’의 쌍형 어간 *‘일-’을 가정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확실성의 양태 선어말 어미 ‘-오/우-’가 ‘-로’로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다’ 어미가 ‘-라’로 바뀌는 것, ‘-도다’의 ‘-도-’가 ‘-로-’로도 바뀌는 것, ‘-더-’ 선어말 어미가 ‘-러’로 바뀌는 것은 *‘일-’의 받침 ‘ㄹ’이 ‘ㄷ’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다른 어미에서도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다. ‘이다’가 가지는 ‘ㄹ’계 어미는 어미의 불규칙성으로 다루기보다는 쌍형 어간 *일-’을 가정하여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인 만큼 대부분은 어간의 불규칙성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로구나’와 같이 ‘구’계 어미 앞에서도 ‘로’가 나타나기도 하는 특이성을 가진다. 이는 ‘이-’의 쌍형 어간을 *일-’로 가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조음소적인 ‘오’를 가정해야 하는데, ‘-로라’와 같은 형태에 대한 유추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거든’과 같이 ‘-거-’를 가진 형태들이 의고적인 ‘이어든’과 같은 형태로 바뀌는 것도 ‘이-’의 쌍형 어간을 *일-’로 가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관대’가 ‘이완대’가 되는 것, ‘이교’가 ‘이요’로 되는 것 등도 이 같은 변화의 연속선상에 있다.

참고문헌

- 강복수 (1964), “국어에 있어서의 준자립어에 대하여,” 청구대학논문집 7, 1-10.
- 고창수 (1986), “어간 형성 접미사의 설정에 대하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김정아 (2001), “‘-이-’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통시적 고찰,” 국어학 37, 국어학회, 309-336.
- 김창섭 (1994), “국어 파생어에 대한 통사론적 해석,” 국어학회 제19회 공동연구회 발표요지.
- 서병국 (1977:재판), 국어문법론고, 학문사.
- 시정곤 (1993), “‘이다’의 ‘-이’가 접사인 몇 가지 이유,” 주시경학보 11, 탑출판사, 143-149.
- 안명철 (1995), “‘이’의 문법적 성격 재고찰,” 국어학 25, 국어학회, 29-49.
- 엄정호 (1989), “소위 지정사 구문의 통사 구조,” 국어학 18, 국어학회, 337-366.
- 엄정호 (2000), “‘-이다’의 ‘이’는 조사인가,” 형태론 2:2, 박이정, 333-343.
- 우순조 (2000), “‘이다’와 ‘아니다’의 상관성,” 형태론 2:1, 박이정, 129-137.
- 이광정 (1994), “‘이다’ 연구의 사적 고찰,” 주시경학보 13, 탑출판사, 45-62.
- 이희승 (1949), 초급국어문법, 박문출판사.
- 이희승 (1950), 국어학개설, 민중서관.
- 임홍빈 (1982), “선어말 {-더-}와 단절의 양상,” 관악어문연구 7, 433-475, 서울대학교 국문과.
- 임홍빈 (1993), 낱앙스 풀이를 겸한 우리말 사전, 아카데미하우스.
- 임홍빈 (2000), “가변 중간투사론: 표면구조 통사론을 위한 제언,” 간행위원회 (2000), 1279-1320.
- 임홍빈 (2001), “국어 품사 분류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국어 연구의 이론과 실제: 이광호교수 회갑기념 논총 간행위원회, 태학사, 705-761.
- 최기용 (2001), “‘이다’의 ‘이’는 주격 조사이다,” 형태론 3:1, 박이정, 102-112.
- 최현배 (1930), 조선어의 품사 분류론, [참고] 역대국어문법대계 제1부 제17책.
- 최현배 (1937), 우리말본, 연희전문출판부.
- 황화상 (2001), “국어 형태 단위의 의미와 단어 형성,” 월인.
- 황화상 (2005), “‘이다’의 문법 범주 재검토,” 형태론 7:1, 박이정, 135-153.
- Oh, Mira (1991), “The Korean Copula and Palatalization,” *Language Research* 27:4, Seoul National University, 701-724.
- Choi, K. (1993), “On the so-called Copular Constructions in Korean,” 언어학 15, 한국언어학회, 397-413.

On Irregular Forms of the Copulative Adjective *ida* in Korean

Im, Hong -pin

This paper's aim is twofold: one is to make it clear that the various *inflected forms with /l/* (shortly *l-inflected forms*) of the copulative adjective *ida* 'to be' should be contained in the irregular inflection (or conjugation) of the adjective, the other is to propose that the *l-inflected forms* might well be described to be derived from the hypothetical form of the stem **il-* of the etymological copulative adjective stem *i-*.

The endings of the copulative adjective *ida* show pairwise parallel structure of two forms: one is without */l/*, the other with */l/*. The endings like *-a/-eo* (the endings expressing reason or cause), *-ado/-eodo* (the ending expressing concession), *-ni* (the ending expressing situational reason), *-guna* (the ending expressing exclamation), etc. show a series of endings without */l/*, whereas the endings like *-la* (the ending expressing reason or cause), *-lado* (the ending expressing concession), *-lani* (the ending expressing situational reason or cause), *-loguna* (the ending expressing exclamation), etc. show another series of endings with */l/*. The latter series of endings with */l/* do not appear in any other paradigms of the verbal and adjectival inflection, so they should be treated as irregular.

Furthermore the *l-inflected forms* can be seen to be derived from the etymological stem **il-* of the copulative adjective *ida*. So, the form like *ila* can straightforwardly be analyzed into the etymological stem **il-* plus regular ending *-a*, and the form like *ilado* can also be analyzed into the etymological stem **il-* plus regular ending *-ado*, etc. On the other hand, the form like *ila* denoting *verba finita*, though not straightforward, can be seen to be derived by the effect of assimilation by */l/* of the stem **il-* exerted towards the following regular ending *-da*, after that the */l/* of the stem lost. The retrospective prefinal ending *'-deo-*' shows similar change into *-leo-* after the etymological stem **il-*. The *g*-dropping that occurs in the form of *igo* → *iyo* (the form of *ida* expressing connective) can also be accounted for by the assumption of the stem **il-*.

Thus it can be said that the etymological stem **il-* provides convincing explanation to the various existing inflected forms of copulative adjective *ida*.

Keywords: Regular Inflection, Regular Conjugation, Irregular Conjugation, Irregular Inflection, n Copulative Adjective, *l*-inflected forms, *g*-dropping, etymological stem, Assimilation,

